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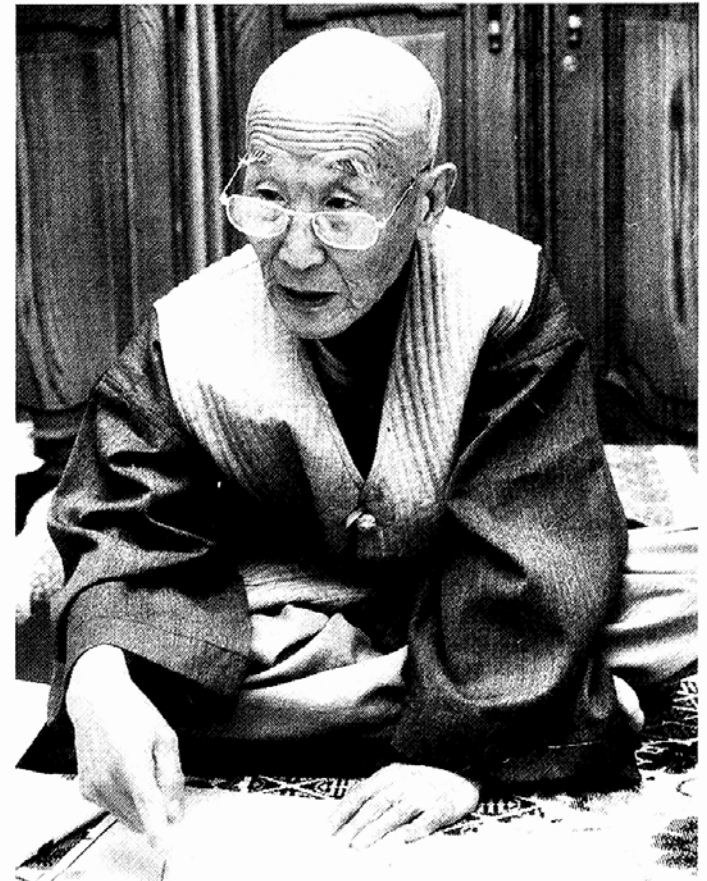
# 법공스님

도안사 조실



## 가까이서 뵈 큰스님

# “마음자리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



◀법공스님은 참선하고 경 읽고 염불하는 것이 복 짓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안이 후덥지근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도안사 보살이 점심공양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은 기자와 함께 공양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어려운 자리가 될 것 같아 사양했다. 공양간에서 막 공양을 시작할 무렵 스님께서 손님 한 분을 직접 데리고 공양간으로 내려 오셨다. 공양간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어도 될 것을, 스님이 직접 안내하시기를 원하셨다.

스님께 <화엄경>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은 스님의 처소에 놓인 <화엄경> '서문'을 직접 쓰신 병풍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문외한이 보기에 글씨가 세련되고 힘이 있어 보였다. 요즘에는 80

권 화엄경을 압축한 <화엄경 현답>을 읽고 계신다면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마치 강의를 하시듯 말씀을 이어 나가셨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대(大)는 다함이 없는 수다라(모든 경전)를 말하지. 작은(小) 것에 대한 상대적인 큰 것이 아니라, 무한 절대(大)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 밖에 진리가 없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지. 방(方)은 바른 법을 스스로 가진 것을 말하며, 모든 존재는 이 법칙을 떠날 수 없지. 광(廣)은 마음을 여의지 않고 모든 진리를 두루 싸고 있는 것을 뜻하며, 불(佛)은 이런 진리를 깨달은 분을 의미하지. 화(華)는 꽃이 피면 모두가 좋아하

사 아래 살고 있었는데, 진묵스님은 봉곡선생에게 책을 빌려서는 절로 올라가면서 한장 한장 찢어 버리는 거야. 봉곡선생이 화를 벌씩 내며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까짓 글자에 왜 매달리느냐”며 되려 봉곡선생을 나무랐다고 그래. 그러더니 찢어진 책 내용을 글자 하나 빠짐없이 모두 외더라는 거야. 공부하는 집중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지. 그렇게 공부하는 스님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러나 스님이 진묵스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진묵스님의 효심 때문이었다.

“진묵스님은 출가하고 나서 어머니 제 사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셨지. 누님이 한 분 있었지만 출가외인이라 그럴 형편이 못되고 해서 지금의 전라도 만경평야에 산소를 모시고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밥을 굶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지.”

법공스님은 효야말로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뿌리 없는 자식 없고, 효가 없으면 충신도 없다고 하셨다.

“진묵스님은 출가하고 나서 어머니 제 사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셨지. 누님이 한 분 있었지만 출가외인이라 그럴 형편이 못되고 해서 지금의 전라도 만경평야에 산소를 모시고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밥을 굶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지.”

법공스님은 효야말로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뿌리 없는 자식 없고, 효가 없으면 충신도 없다고 하셨다.

### “ 모든 행의 근본인 효심이 사라지니 사회가 혼란스러워 ”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대부분은 중생을 설하셨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해골을 보고는 절을 하며 내 전생의 부모님 유품이니 잘 받들어 봉안하라고 하신 것은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지. 효는 인간의 근본이자 인류의 근본이기도 한 것이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효심이 있기 때문이지. 불교의 바탕이 효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스님은 효 정신이 아예 실종된 요즘 사회를 개탄하셨다. 손자가 할머니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이 그토록 효를 생각하는 스님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자명한 일이었다. 스님은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밑바탕에 효가 없기 때문이



##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 합월 선사 '覺心'

漏屋虛窓影自清(투옥허창영자정)

선사의 법명은 해원(海源), 법자는 천경(天鏡), 법호는 합월(合月)이며, 속성은 국씨(國氏)다.

합월도 합흥에서 살고있던 어머니 조 씨는 어느날 꿈에 큰 물고기가 몸을 감싸는 것을 체험하고 잉태하여 열달이 훨씬 지난 조선 숙종 17년(1691)에 태어났다.

선사는 세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유년을 보내다가 14세에 문주(문)의 합월(합)도 도창사 석단 장로를 찾아가 출가하였다. 그 후 영지 대사에 계 구족계를 받았고, 환성 지안 선사에게 수좌하였다.

선사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죽시에 잠을 자고 인사 초에 일어나 정진하였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 2-3시간이었으며, 백우선(白牛禪·법화경) 비유 꿈에 나오는 일화의 주인공 한산소가 비장대력하고 그 행동이 바람과 같이

영겁(永劫)따라 밝히려는 등불, 꺼지고 켜집도 없는 아름다운 밝은 빛.

삼라만상 깨끗이 할 청아한 바람 일어난다.

타락된 선실 허공의 창에 비친 나의 맑고 맑은 마음이라.

자연을 초월하는 선사의 깨침은 청아하다 못해 생멸(生滅)도 없어 보인다. 당시 쇠잔해지는 지리의 등불에 불을 켜 선사, 삶에 있어서 허망 속에 내재한 진실된 그 무엇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의 구원에 힘쓰라고 가르쳤다.

선사께서 깨친 해안은 현종(玄宗·현묘(玄妙)한 종지(宗旨), 즉 부처님(佛)의 통각(通覺)이다. 세속적 물욕에서 벗어나 청아한 삶을 살라는 선사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미혹한 중생들의 정신

선사께서 깨친 해안은 현종(玄宗·현묘(玄妙)한 종지(宗旨), 즉 부처님(佛)의 통각(通覺)이다. 세속적 물욕에서 벗어나 청아한 삶을 살라는 선사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미혹한 중생들의 정신

## 돌아보니 천지는 삼천대천세계

## 견줄수 없는 마음 어떻게 말하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수행을 하였다. 이러한 수행은 10년만에 중문(宗門)의 묘전(妙證)을 모두 배워 마쳤다.

선사는 용맹정진 10년만인 가을의 어느날 밤 가부좌하고 입정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불어온 회오리바람에 낙엽이 창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확연 대오(懺然大悟)하였다.

적지주가 되고 있다.

선사는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終日忘機坐(종일망기좌)  
諸天花雨飄(제천화우표)  
生涯何所有(생애하소유)  
壁上掛單瓢(벽상괘단표)

세상일 잊고 고요히 앉아있노라니, 천지엔 온통 분분한 꽃과 비 뿐이네. 내게 있는 건, 다만 벽에 걸린 표주박 하나뿐.

이것이 선사가 설한 가르침의 정수이다. 선사는 살아있을 때 어금니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리(舍利)가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에 선사를 천하제일의 각자(覺者)라고 종도(宗徒)들은 입을 모았다.

영조 46년(1770)에 안변 석왕사에서 열반에 드셨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각심(覺心)  
範圍天地大(범위천지대)  
絕對有何從(절대유하종)  
可矣觀心者(가소관심자)  
量空又繫風(양공우계풍)

돌아보니 천지는 삼천대천세계, 견줄수 없는 마음 어떻게 말하리. 이렇게 맑고 밝은 마음, 그 크기와 무게를 어떻게 논하리.

심동화(心動化)  
歷劫傳傳無盡燈(역겁전전무진등)  
不會桃別鏡長明(불회도별진장명)  
任他雨灑兼風亂(임타우쇄겸풍란)

# 국제 불교 유적 성지순례 인도 · 네팔 · 중국 · 미얀마

인도 9일 상품가 1,690,000원

- ☐ 일 정: 서울-방콕-캘커타-파트나-라지گیر-보다가야-바라나시-쿠쉬나가르-룸비나-사라와스티-곤다-아그라-델리-방콕-서울
- ☐ 출 발 일: 매주 목요일 출발
- ☐ 포함 사항: 방콕 초특급 호텔 1박(관광 없음), 국제선 왕복 항공(타이 항공 이용), 인도 전지역 디럭스 호텔 숙박,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 불포함 사항: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팀등 개인 비용

- 캘커타 국립 박물관 관광-부처님 진신 사리 천견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 대학 관광
- 마하보디 사원 관광
- 갠지스강 보트유람 및 황금사원 관광
- 부처님의 탄신지 룸비니 관광

인도-네팔 11일 상품가 1,990,000원

- ☐ 일 정: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다가야-파트나-쿠쉬나가르-룸비나-포카라-카트만두-방콕-서울
- ☐ 출 발 일: 매주 목요일 출발
- ☐ 포함 사항: 전일정 디럭스 호텔 숙박 및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 불포함 사항: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네팔 비자피 (40,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팀등 개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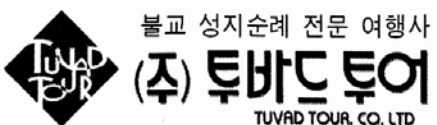
- 라지가트, 인디아게이트, 대통령궁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불리는 타지마할, 아그라성 관광
- 갠지스강 보트투어로 갠지스강 일출, 화장터, 황금사원, 힌두인의 목욕의식 관광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유적지
- 열반지에 세워진 보리수나무와 불교사원
- 포카라 항발종식후 포카라 시내 관광 - 페와 호수, 대비폭포 등
- 히말라야 일출 감상
- 스위양부니스 사원, 황궁광장, 보드나스 불교사원

중국-북경, 대동, 오대산, 태원 5일 상품가: 599,000원

- ☐ 일 정: 인천-북경(대동)-오대산-태원-북경-인천
- ☐ 출 발 일: 수시 출발
- ☐ 포함 사항: 디럭스 호텔 숙박 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 불포함 사항: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중국 비자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팀등 개인 비용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사가잉 6일 상품가: 1,690,000원

- ☐ 일 정: 인천-방콕-양곤-바가-폼빠-바간-파간-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양곤-방콕-인천
- ☐ 출 발 일: 수시 출발
- ☐ 포함 사항: 디럭스 호텔 숙박 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 불포함 사항: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미얀마 비자피(30,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팀등 개인 비용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 투바드 투어**  
TUVAD TOUR CO., LTD

서울 용산구 한남동 258번지 현대리버티하우스 102-4호  
Tel : 02-797-7686~7 / Fax : 02-798-3877

URL : www.gagatour.com  
E-mail : master@gagatour.com